



소통하고 신뢰받는
무안군의의회

2026. 1. 1.

군민의 희망을 일구고, 무안의 도약을 완성하겠습니다.

신년사



무안군의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지혜와 활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무안이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무안군의회는 목표를 명확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의회는 현장에서 수많은 군민을 만났습니다.

새벽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에서, 떡약별 아래 양파를 수확하는 농민의 얼굴에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의 발걸음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약속합니다. 도농복합도시 무안의 특성에 맞춰, 소상공인은 대형 자본에 밀리지 않고 골목상권을 지키게 하고,

농민은 땀 흘린 만큼 소득을 보장받게 하며, 청년은 무안에서 일 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리게 하겠습니다.

의회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입니다.

“민생” 만을 가리키는 의정 나침반을 따라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군은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무안의 백년대계의 씨앗을 준비중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 씨앗들이 싹을 틔워 뿌리깊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되 견제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한해가 기후 위기와 경기침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무안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씨앗을 뿌려왔다면, 2026년은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견고한 줄기를 뻗어 나가는 “실행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의회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의회는 군민의 뜻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담기는 물도 맑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의회는 「청렴과 소통」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더욱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쓴소리는 보약으로 삼고, 작은 제안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뒤쫓지 않겠습니다. 무안군의회가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조례 한 줄에도 무안의 특수성과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스스로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 뿐입니다.

무안군의회가 군민의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옆에서 동행하겠습니다.
2026년 말에 “무안에서 살아서 참 좋다”는 말씀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무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곧 무안의 미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 1. 1.

무안군의회 의장 이 호 성